

금호타이어, 직업 암 산업재해 신청

노조, 곡성공장 2명에 광주공장 1명 ...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10명도

금호타이어와 기아자동차 근로자 다수가 직업성 암 산업재해를 신청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곡성공장,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근무하며 암이 발병한 근로자들의 산재신청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노조는 7월20일께 백혈병을 앓는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근로자 2명, 폐암으로 숨진 광주공장 근로자 1명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예정이다.

또 폐암, 갑상선암, 위암 등이 발병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근로자 10명에 대해서도 면담을 거쳐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생산과정에 쓰는 발암성 유해물질이 근로자의 체내에 축적되고 있는데도 적절한 정보제공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월부터 직업성 암 환자 찾기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4월28일에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진중공업 등 근로자 14명의 직업성 암 재해신청을 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7/06>